

「자두만행」은 日本軍 소행

趙東杰교수 日産經신문 보도 반박

지난 3.1절을 기해 국 내신문에 소개했던 자두만 행(韓國인의 목을 베는 일본 군) 사진이 일본신문과 무관하다는 일본 산케이(産經) 신문보도(본보 6일자 2면) 일부지방 7일자)에 대해 국 내화자의 반론이 제기됐 다.

趙교수는 독립기념관에

사인人物 30년대 滿洲진출 軍복장

양복입은 구경꾼 日人들 틀림없다

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 趙東杰교수(국민 대)는「사진속 군인의 모자 가 일본군 모자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일본군과 무관하다는 산케이신문의 주장은 잘못되었」이라면서 「사진속의 나오는 인물의 복장을 볼 때 이 장면은 1930년대 중반 滿洲에

소장돼 있는 일본군 사진첩 에 실린 1930년대 일 본군 사진들 보면「자두만 행」사진과 같이 군모에 하 안테두리가 있으며 구경 관복장이 주로 양복인 점 으로 보아 만주에 살고 있 던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.

趙교수는 또 처형당하는 사람이 匪賊으로 보이는 무장집단이라는 산케이신 문에 주장에 대해서도「비 적이었다면 더뎌머리에 복 장이 없었을텐데 처형당하 는 사람의 머리와 복장이 비교적 단정한 것으로 보 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 다」고 주장했다.